

제 목 :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개편

-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1일 회의에서 현재 **시중(45%) 및 지방(60%) 은행**에 대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**중소기업대출비율***(이하 '중기비율')을 **50%로 일원화**하기로 의결하였음

* **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**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.4월 도입되었으며, **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동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**토록 규정(「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」)

-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**지방은행**에 대한 **역차별 문제***를 해소하면서도 **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** 현 시중은행(45%) 및 지방은행(60%)에 적용되는 **중기비율을 50% 수준에서 절충**

* 그간 차등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된 점,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 및 지방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

- 한편 동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**23.7.1일자로 시행**

은행그룹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연혁

	65.4~	77.4~	80.10~	85.3~	86.4~	86.8~	92.2~	94.5~	97.7~	(%)
시중은행	30	30	35	35	35	35	45	45	45	50
지방은행	30	40	55	55	80	80	80	70	60	50
외은지점	-	-	-	25	25	25(35)	25(35)	25(35)	25(35)	25(35)

주 : ()내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용시 적용 비율

- 금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**시중-지방 은행**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**형평성 문제**를 해소하면서도 **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우신욱, 과장 김자영
Tel 02-759-4491, 4712 Fax : 02-759-4490

공보관 : Tel 02-759-4015, 4016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